



2026. 2.

목자의 마음으로 순원을 품는

순모임 프리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

2026. 2. 1. 바셀 캠퍼스 본당 오후 2시



2월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올 한 해 '부르심을 살라 Live Your Calling'이라는 구호로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가지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르심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존귀한 자녀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마음에 기억하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자신 있게 선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정체성은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부르심에 나아가도록 도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부르심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녀로 부르셨을 뿐 아니라 다른 부르심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정으로 부르셨고, 형제 교회로 부르셨고, 소그룹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2월을 시작하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인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존귀한 왕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서 길을 여실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렇게 일상의 부르심들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고자, 올해 공동체 30일을 일상 30일(30 Days of Workshop)이라는 주제로 진행합니다. Workshop이라는 단어는 의도적으로 만든 합성어입니다. 즉, 주일에 드리는 예배(Worship)와 일(Work)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3월 27일과 28일에는 이 주제를 가지고 컨퍼런스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실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한 분들의 이야기와 간증이 형제의 삶에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이보다 더 좋은 일들을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스도의 종, 권준 드림



목자의 마음으로 순원을 품는

순모임 프리뷰

순모임용

| 생명의 삶 나눔식 소그룹 2, 2월 12일 본문, P166

본문의 핵심 Focus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음 열기 Ice Breakers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여섯 개 언어로 성경을 완역하고 인도 선교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열매를 맺은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보십시오.

말씀 함께 읽기 Examine God's Word

마태복음 13:1-17을 함께 읽어보세요. 반복되는 단어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들에 동그라미나 밑줄로 표기해 보십시오.

배경 이해하기 Understand Setting

1세기 당시 예수님은 사람들이 익숙한 씨 뿌리는 자와 땅들에 대한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비록 이 비유의 이름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알려져 있지만,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씨가 뿌려진 땅들입니다. 구약 성경 역사에서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 시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의 마음을 ‘굳은 마음’으로 비유하였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을 예언하기도 했습니다(겔 36:26).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받는 마음’ 또는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 네 종류의 땅을 언급하며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도 함께 점검해 봅니다.

말씀 묵상 나눔 Meditate the Text

1 < 관찰과 묵상 > 예수님은 우리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려주시며 언급하신 네 종류의 땅은 각각 무엇인가요?(4-8절)

2 < **관찰과 묵상**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전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11, 13절)

3 < **적용과 나눔** 내가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그것을 오래 간직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좋은 땅처럼 결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나누어 보세요.

말씀다지기 ▶ Review the Text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을 의미하며, 네 종류의 땅은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자세를 말합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는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탐욕과 염려를 내려놓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 Pray through the Text

- 1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지나친 염려를 내려놓게 하소서.
- 2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순종하는 길에서 많은 열매를 허락 하소서.



목자의 마음으로 순원을 품는

순도임 프리뷰

순장용

| 생명의 삶 나눔식 소그룹 2, 2월 12일 본문, P166

본문의 핵심 Focus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음 열기 Ice Breakers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여섯 개 언어로 성경을 완역하고 인도 선교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열매를 맺은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보십시오.

말씀 함께 읽기 Examine God's Word

마태복음 13:1-17을 함께 읽어보세요. 반복되는 단어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들에 동그라미나 밑줄로 표기해 보십시오.

개정개역	우리말성경	ESV
1 그 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1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습니다.	1 That same day Jesus went out of the house and sat beside the sea.
2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2 큰 무리가 주위로 모여들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가 앉으셨고 사람들은 모두 호숫가에서 있었습니다.	2 And great crowds gathered about him, so that he got into a boat and sat down. And the whole crowd stood on the beach.
3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3 그러자 예수께서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농부가 씨를 심으러 나갔다.	3 And he told them many things in parables, saying: “A sower went out to sow.
4 뿌릴새 더러는 길 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4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모두 쪼아 먹었다.	4 And as he sowed, some seeds fell along the path, and the birds came and devoured them.
5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5 또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져 흙이 얇아 싹이 곧 나왔으나	5 Other seeds fell on rocky ground, where they did not have much soil, and immediately they sprang up, since they had no depth of soil,
6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6 해가 뜨자 그 싹은 시들어 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 버렸다.	6 but when the sun rose they were scorched. And since they had no root, they withered away.
7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7 또 다른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 무성해져 싹이 나는 것을 막아 버렸다.	7 Other seeds fell among thorns, and the thorns grew up and choked them.
8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8 그러나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었다.	8 Other seeds fell on good soil and produced grain, some a hundredfold, some sixty, some thirty.

9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10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11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12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13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14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5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풀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16 그러나 너희 눈은 밝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17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9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10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 씀하십니까?”
 11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됐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12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더욱 풍성해질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13 내가 비유로 가르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14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15 이 백성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귀는 듣지 못하고 눈은 감겨 있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해 내가 그들을 고쳐 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16 그러나 너희 눈은 볼 수 있으니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들을 수 있으니 복이 있다.
 17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려 했지만 보지 못했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들으려 했지만 듣지 못했다.

9 He who has ears,[a] let him hear.”
 10 Then the disciples came and said to him, “Why do you speak to them in parables?”
 11 And he answered them, “To you it has been given to know the secrets of the kingdom of heaven, but to them it has not been given.
 12 For to the one who has, more will be given, and he will have an abundance, but from the one who has not, even what he has will be taken away.
 13 This is why I speak to them in parables, because seeing they do not see, and hearing they do not hear, nor do they understand.
 14 Indeed, in their case the prophecy of Isaiah is fulfilled that says: ‘You will indeed hear but never understand, and you will indeed see but never perceive.’
 15 For this people’s heart has grown dull, and with their ears they can barely hear, and their eyes they have closed, lest they should see with their eyes and hear with their ears and understand with their heart and turn, and I would heal them.’
 16 But blessed are your eyes, for they see, and your ears, for they hear.
 17 For truly, I say to you, many prophets and righteous people longed to see what you see, and did not see it, and to hear what you hear, and did not hear it.

배경 이해하기 Understand Setting

1세기 당시 예수님은 사람들이 익숙한 씨 뿌리는 자와 땅들에 대한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비록 이 비유의 이름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알려져 있지만,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메세지의 핵심은 씨가 뿌려진 땅들입니다. 구약 성경 역사에서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 시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의 마음을 ‘굳은 마음’으로 비유하였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을 예언하기도 했습니다(겔 36:26).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받는 마음’ 또는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 네 종류의 땅을 언급하며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도 함께 점검해 봅니다.

1 < 관찰과 묵상 > 예수님은 무리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려주시며 언급하신 네 종류의 땅은 각각 무엇인가요?(4-8절)

예수님이 언급하신 네 가지 땅은 길가, 돌밭, 가시떨기 위, 좋은 땅입니다.

해설 본문의 주요한 초점은 씨가 떨어진 네 종류의 밭에 있습니다. 1. 길 가란 원어적으로 밭 옆에 나 있는 길, 또는 발두렁 등을 의미합니다.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에 따르면, 새들은 사탄 또는 악한 자를 의미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피상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새로 표현 된 사탄이 가져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2. 돌밭이란 아래에 기반암이 있고 흙이 얇게 깔린 땅을 말합니다. 땅은 햇빛으로 인해 빨리 온도가 올라 갑니다. 그래서 씨가 싹을 내지만, 수분이 쉽게 빠져나가고 고온이 유지되기 때문에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예수님의 해석에 따르면,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말씀에 집중했지만 나중에는 여러 문제, 박해 등으로 인해 포기해버리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3. 가시덤불에 가로막혀서 자라지 못한 씨는 처음에는 어느 정도 싹을 내고 성장하지만 방해요소들 예를 들어 탐욕과 같은 세속적인 염려로 인해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 탐욕 또는 세속적인 염려가 있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4. 좋은 땅은 잘 관리된 땅으로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결실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농사를 지으면 일반적으로 열 배 또는 스무 배의 수확을 거두어도 성공적인 결과로 간주하였습니다. 본문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언급한 것은 아주 큰 열매를 의미합니다.

2 < 관찰과 묵상 >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전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11, 13절)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만 알 수 있고, 그 외 사람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위해서

해설 몇몇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언급하신 이유 중 하나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했던 배경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말고, 좋은 땅과 같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왜 비유로 가르치는 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은 이사야 6장 9-10절을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 비유를 통해 진리를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선택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주어진 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3 < 적용과 나눔 > 내가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그것을 오래 간직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좋은 땅처럼 결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나누어 보세요.

해설 네 종류의 밭의 특성을 고려할 때, 우리는 다음 질문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너무 많은 스케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 않은가?

나는 처음에 믿음으로 결단했지만 실천을 포기하거나, 순종을 멈추고 있는 말씀이 있는가? 마음의 탐욕이나 지나친 염려로 말씀의 순종을 미루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결실을 맺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그 말씀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끝까지 말씀을 붙든다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열매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다지기 Review the text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을 의미하며, 네 종류의 땅은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자세를 말합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는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탐욕과 염려를 내려놓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Pray through the text

- 1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지나친 염려를 내려놓게 하소서.
- 2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순종하는 길에서 많은 열매를 허락 하소서.

손장님을 위한 말씀 구절 연구 Word Studies

3절a 비유 마태복음 안에서 비유라는 단어는 13장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비유는 유사한 개념을 함께 언급함으로써 생각을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언급하신 많은 비유들 중에, 초대교회 공동체 또는 유대인들을 생각하며 가장 유익한 비유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From Matt. 13:3, we assume that Jesus told many parables (cf. 1 Kings 5:12 LXX [4:32 Eng.]) and that Matthew selects representative stories reflecting the gist of Jesus's teaching, parables that Matthew views as most relevant for his community." _ David L. Turner, Matthew, 338.

3절b 씨를 뿌리는 자 이 본문은 많은 경우에 씨 뿌리는 비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씨를 뿌리는 자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집중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개념은 바로 땅으로 언급된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Jesus himself is the sower, but the parable has immediate application to the disciples' ministry and ultimate application to the later church's proclamation." David L. Turner, Matthew, 341.

4절 길 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 가란 원어적으로 밭 옆에 나 있는 길, 또는 밭두렁 등을 의미합니다.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에 따르면, 새들은 사탄 또는 악한 자를 의미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피상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새로 표현 된 사탄이 가져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5절 흙이 얇은 돌밭 유대 지역에서 돌밭은 기반암이 있고, 흙이 얇게 깔려 있는 땅을 말합니다. 이러한 땅은 햇빛으로 인해 빨리 온도가 올라 갑니다. 그래서 씨가 싹을 내지만, 수분이 쉽게 빠져나가고 고온이 유지되기 때문에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예수님의 해석에 따르면,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말씀에 집중했지만 나중에는 여러 문제, 박해 등으로 인해 포기해버리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The rocky soil of Matt. 13:5-6 refers to an underlying shelf of bedrock, not multiple rocks in the soil. Such soil warms rapidly and the seed sprouts quickly, but the plant soon wilts as the soil loses moisture (cf. James 1:11)." _ David L. Turner, Matthew, 338.

7절 가시떨기 ... 가시가 기운을 막았고 위 가시덤불에 가로막혀서 자라지 못한 씨는 처음에는 어느 정도 싹을 내고 성장하지만 방해요소들 예를 들어 탐욕과 같은 세속적인 염려로 인해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 탐욕 또는 세속적인 염려가 있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8절 백 배,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 고대 근동 사회에서 농사를 지으면 일반적으로 열 배 또는 스무 배의 수확을 거두어도 성공적인 결과로 간주하였습니다. 본문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언급한 것은 아주 큰 열매를 의미합니다. 즉,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큰 열매를 맺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The most unusual feature of the parable is the extraordinary crop produced by the seed that fell on good soil. A tenfold to twentyfold yield was often considered superior."_Craig L. Blomberg, Matthew (TNAC), 170.

10절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몇몇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언급하신 이유 중 하나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했던 배경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사야 6장 9-10절을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 비유를 통해 진리를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선택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주어진 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As Jesus speaks to the crowd, his disciples ask him why he is speaking in parables (cf. Mark 4:10-12; Luke 8:9-10). Jesus's answer implies that this manner of speaking is due to the rejection of his message by many of his listeners, but it is ultimately due to God's sovereign purpose to reveal the mysteries of the kingdom (cf. Mark 4:11; Luke 8:10) to whom God chooses (cf. Matt. 11:25-27)." _David L. Turner, Matthew, 339.

11절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이 구절은 문법적으로 신적 수동태가 사용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9-10절을 인용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강조하는 가장 대표적인 구절 중 하나입니다.

"Finite humans will never fully understand the interplay of God's sovereignty and human responsibility. Matthew 13:11-15, with its citation of Isa. 6:9-10, is one of the strongest biblical affirmations of God's prerogative to reveal himself as he sees fit, David L. Turner, Matthew, 340.



목자의 마음으로 순원을 품는

순모임 프리뷰

순모임용

| 생명의 삶 나눔식 소그룹 4, 2월 23일 본문, P184 |

본문의 핵심 Focus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은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합니다.

마음열기 Ice Breakers

다음 빈 칸을 채우고 그 이유를 나누어 보십시오.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_____ 이다.

말씀 함께 읽기 Examine God's Word

마태복음 16:13-28을 함께 읽어보세요. 반복되는 단어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들에 동그라미나 밑줄로 표기해 보십시오.

배경 이해하기 Understand Setting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가이사라 빌리보 지역을 방문하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서 의도적으로 방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평범한 도시가 아니라 거의 신전들의 백화점라고 할 만큼 많은 신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세상의 신들을 섬기는 그곳에 제자들을 데려가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한 번 더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문장의 주어 “너희는” 대명사로서 따로 언급됨으로써, 예수님이 제자들의 고백을 집중하시며 물어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살펴봅시다.

말씀 묵상 나눔 Meditate the Text

1 < 관찰과 묵상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물음에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했나요? (15-16절)

시몬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2 < 적용과 나눔 > 예수님을 따르려는 자에게는 어떤 태도와 결단이 요구되나요?(24-26절)

3 < 적용과 나눔 > 예수님을 위해 무언가를 희생하거나 손해 본 경험이 있다면 어떤 경우였는지, 그런 경험이 없다면 어떤 결단을 해야 할지 나누어 보세요.

말씀다지기 Review the Text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구약성경에서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약속된 언약의 메시아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로마 황제나 어떤 신들보다 높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한 제자들은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올 때 하나님의 상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Pray through the Text

- ① 예수님께 대한 굳건한 신앙고백과 늘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 ② 여러 선택의 기로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선택을 내리게 하소서.



독자의 마음으로 순원을 품는

순도임 프리뷰

순장용

| 생명의 삶 나눔식 소그룹 4, 2월 23일 본문, P184

본문의 핵심 Focus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은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합니다.

마음열기 Ice Breakers

다음 빈 칸을 채우고 그 이유를 나누어 보십시오.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_____ 이다.

말씀 함께 읽기 Examine God's Word

마태복음 16:13-28을 함께 읽어보세요. 반복되는 단어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들에 동그라미나 밑줄로 표기해 보십시오.

개정개역	우리말성경	ESV
13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14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15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7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13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14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나 예언자 중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5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16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7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다.” 18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19 내가 네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무엇이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13 Now when Jesus came into the district of Caesarea Philippi, he asked his disciples, “Who do people say that the Son of Man is?” 14 And they said, “Some say John the Baptist, others say Elijah, and others Jeremiah or one of the prophets.” 15 He said to them, “But who do you say that I am?” 16 Simon Peter replied,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17 And Jesus answered him, “Blessed are you, Simon Bar-Jonah! For flesh and blood has not revealed this to you, but my Father who is in heaven. 18 And I tell you, you are Peter, and on this rock [b] I will build my church, and the gates of hell [c] shall not prevail against it. 19 I will give you the keys of the kingdom of heaven, and whatever you bind on earth shall be bound in heaven, and whatever you loose on earth shall be loosed [d] in heaven.”

20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21 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삼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22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23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24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5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26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27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2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20 그 후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시다.

21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신이 마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 것과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드러내기 시작하셨습시다.

22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거칠게 소리 높였습니다. “주여!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주께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23 예수께서 베드로를 돌아다보며 말씀하셨습시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 돌이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24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시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25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

26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목숨을 무엇과 맞바꾸겠느냐?

27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올 것이다. 그때 인자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 줄 것이다.

28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서 서 있는 사람 가운데 죽음을 맛보기 전에 인자가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을 것이다.”

20 Then he strictly charged the disciples to tell no one that he was the Christ.

21 From that time Jesus began to show his disciples that he must go to Jerusalem and suffer many things from the elders and chief priests and scribes, and be killed, and on the third day be raised.

22 And Peter took him aside and began to rebuke him, saying, “Far be it from you, Lord! [e] This shall never happen to you.”

23 But he turned and said to Peter, “Get behind me, Satan! You are a hindrance [f] to me. For you are not setting your mind on the things of God, but on the things of man.”

24 Then Jesus told his disciples,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let him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25 For whoever would save his life [g] will lose it, but whoever loses his life for my sake will find it.

26 For what will it profit a man if he gains the whole world and forfeits his soul? Or what shall a man give in return for his soul?

27 For the Son of Man is going to come with his angels in the glory of his Father, and then he will repay each person according to what he has done.

28 Truly, I say to you, there are some standing here who will not taste death until they see the Son of Man coming in his kingdom.”

배경 이해하기 Understand Setting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방문하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방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평범한 도시가 아니라 거의 신전들의 백화점이라고 할 만큼 많은 신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세상의 신들을 섬기는 그곳에 제자들을 데려가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한 번 더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문장의 주어 “너희는” 대명사로서 따로 언급됨으로써, 예수님이 제자들의 고백을 집중하시며 물어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살펴봅시다.

1 < 관찰과 묵상 >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물음에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했나요? (15-16절)

시몬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해설 본문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라고 표현했지만 원문에는 그냥 당신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You are the Christ, ESV Bible). 본문에서 나오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기름부음을 받은 자 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 단어입니다. 구약성경에는 기름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왕, 대제사장,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기름부음을 받은 왕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다윗의 언약을 따라서, 다윗의 왕가 또는 후손으로 오실 영원한 왕,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즉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했습니다. 사실,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많은 신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당시 존재하던 대표적인 신전들이 모인 그 곳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장 높으신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2 < 적용과 나눔 > 예수님을 따르려는 자에게는 어떤 태도와 결단이 요구되나요? (24-26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자기 목숨을 구하려 하면 잃고, 예수님을 위해 잃으면 얻게 됩니다.

해설 ‘자기를 부인하다’라는 표현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라는 의미를 담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보입니다. 자기 부인은 스스로 학대나 자존감을 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건강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 적용과 나눔 > 예수님을 위해 무언가를 희생하거나 손해 본 경험이 있다면 어떤 경우였는지, 그런 경험이 없다면 어떤 결단을 해야 할지 나누어 보세요.

해설 예수님은 신앙을 고백하는 제자들이 따라와야 할 제자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제자들은 자주 손해, 고난, 고통, 어려움 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포기하거나 손해를 경험했던 일들을 나누어 보십시오.

말씀다지기 Review the text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구약성경에서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약속된 언약의 메시아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로마 황제나 어떤 신들보다 높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한 제자들은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올 때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Pray through the text

- 1 예수님께 대한 굳건한 신앙고백과 늘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 2 여러 선택의 기로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선택을 내리게 하소서.

손장님을 위한 말씀 구절 연구 Word Studies

13절 단어 빌립보 가이사라 가이사라 빌리보 라고 하는 도시는 사실 두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입니다. 그리스 언어로 황제라는 말은 가이사입니다. 그러므로 가이사라라는 말은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뒤에 나오는 빌립보라는 이름은 그 당시 이 지역을 관할하던 분봉 왕, 헤롯 빌립의 이름을 따서 붙인 것입니다. 헤롯 빌립은 정치적인 수완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은 로마 황제의 환심을 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건설했고, 이 도시를 황제에게 헌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이름을 가이사라 빌립보 라고 지었습니다. “Formerly known as Paneas, a center of worship for the Greek god Pan, the city recently had been renamed by Philip the tetrarch in honor of himself and Augustus Caesar.”_ Craig L. Bloomberg, Matthew: TNAC Commentary, 200.

14절 심령이 가난한 자 사람들이 세례요한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세례 요한이 최근까지 가장 영향력 있게 사역했던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라고 말한 이유는 구약성경에서 가장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켰고, 엘리야를 보내시리라 하는 말라기서의 약속도 있었기 때문입니다(말 4:5). 예레미야라고 말했던 이유는 예레미야가 유다의 멸망을 선포할 때, 국가 지도자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핍박을 받고 있는데서 사용한 표현일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Many had obviously not made the link between Elijah and John the Baptist. It would be natural to think of Jesus also as a kind of Jeremiah, a preacher of judgment and repentance who was widely rejected by the leaders of his nation.”_David L. Turner, Matthew: Baker Commentary, 403; Craig L. Bloomberg, Matthew: TNAC Commentary, 200.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오 본문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라고 표현했지만 원문에는 그냥 당신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2인칭 남성 단수입니다. 문법적으로 번역한 ESV성경도 You are the Christ라고 번역했습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기름부음을 받은 자 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 단어입니다. 구약성경에는 기름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왕, 대제사장,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기름부음을 받은 왕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다윗의 언약을 따라서, 다윗의 왕가 또는 후손으로 오실 영원한 왕,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7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 즉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했습니다. 사실, 가이사라 빌립보에는 많은 신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추대하고 헌정한 아우구스투스 신전이 있습니다. 판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바쳤던 동굴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제우스신, 네메시스 신, 신성한 염소 신들을 섬기던 신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당시 존재하던 모든 신들이 모인 곳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장 높으신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18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고백한 이후,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가 누구인지 언급하셨습니다. 그리스 언어로 베드로의 이름(Petros)과 반석((petra)은 비슷한 발음이 나는 언어유희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이곳에서 처음 언급하시면서, 베드로를 귀하게 사용하실 것을 언급했습니다. “The play on words in the Greek between Peter’s name (Petros) and the word “rock” (petra) makes sense only if Peter is the rock and if Jesus is about to explain the significance of this identification.”_ Craig L. Bloomberg, Matthew: TNAC Commentary, 201.

18절b 음부의 권세 이 구절을 직역한다면 “음부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교회의 전진을 막아낼 수 없다는 의미이다. 예수님이 언급하신 겨자씨의 비유를 고려할 때,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는 것을 막을 자가 없다는 표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입니다(마 13:31-33). “This interpretation fits better into the historical context of the increasing hostility against Jesus and his small band of disciples. The parables of the mustard seed and yeast (13:31 – 33) have already promised surprisingly large results and a widespread impact, despite inauspicious beginnings.”_ Craig L. Bloomberg, Matthew: TNAC Commentary, 202.

19절 천국 열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약속하셨는데, 매고 푸는 권세를 의미합니다. 많은 이들은 공동번역성경(GNB)의 “금하다”와 “허락하다”라는 번역을 지지합니다. 이 표현은 그리스도인들의 증언과 설교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거나 닫는 권세가 교회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23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의 삶을 가로막으려는 시도는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방향을 이야기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교회를 세우는 기초석이 아니라 오히려 걸림돌과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Trying to thwart God’s plan for Jesus’ life is in fact the role of the devil, not of a disciple; hence, Christ’s reply. Jesus is not accusing Peter of literal demon possession, but he is dramatically indicating that the perspective Peter represents, however unwittingly, is the same as Satan’s. Peter therefore is no longer acting like the foundation block of the church but like a “stumbling block.”_ Craig L. Bloomberg, Matthew: TNAC Commentary, 206.

24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표현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라는 의미를 담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보입니다. 자기 부인은 스스로 학대나 자존감을 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건강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elf-denial does not imply self-abuse or lack of self-esteem. As Jesus’ disciples believers should have a better self-image than any other people, but it should be based on God’s grace and not their merit. Self-denial does, however, mean putting God and his kingdom priorities first.”_ Craig L. Bloomberg, Matthew: TNAC Commentary, 207.

28절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많은 학자들은 이 구절을 부활, 오순절 성령 강림, 혹은 주후 70년에 성전이 파괴될 때 나타난 그리스도의 심판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열두 제자가 살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Other popular but less probable views of “the Son of Man coming in his kingdom” include taking the clause to refer to the resurrection, the sending of the Spirit at Pentecost, or Christ’s coming in judgment to destroy the temple in A.D. 70. Still others think that Jesus mistakenly expected to return while some of the Twelve were still living.” _Craig L. Bloomberg, Matthew: TNAC Commentary, 207.

2월 주요 사역일정과 기도제목

주요 사역 일정

- 새해에 사역을 기획하고 계획하는 모든 사역팀 리더십에 성령님과 지혜를 채워주소서.
- 새해에도 선교작정과 중보기도 작정을 통해서 복음이 더욱 힘있게 전파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소서.
- 미션 엡셀 101(2/28) 훈련을 통해 이웃리치 참가자들이 보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공동체를 살리는 준비된 순종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소서.
- 일상 30일 캠페인을 준비하는 사역자팀과 캠페인팀에 지혜를 주시고, 모든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소서.
- 일상 30일 컨퍼런스(온라인 & 현장 Workship Global Summit, 3/27-28)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일상과 일터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소서.
- 순도를 섬기는 순장, 순모님에게 리더십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 됨을 이루게 하소서.
- EW 성도들에게 예배 때마다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새가족들이 정착할 수 있는 순과순장님들이 잘 세워지게 하소서.

다음 세대 기도제목

- Sonlight 를 섬기는 교사와 봉사자들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Sonlight에 속한 모든 교사와 봉사자들, 자녀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 Coram Deo 학생들이 2월 20-22에 있는 수련회에서 마음이 열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는 참된 변화가 있게 하소서.
- NEXT 학생들이 2월 14-16에 Warm Beach Camp에서 수련회를 가지는데,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학생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게 하소서.
- EW College 학생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깊이 교제하는 은혜를 주소서.
- NeWave 청년부가 새로 시작하는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믿음이 굳건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들 되게 하소서.



시애틀형제교회
COMMUNITY CHURCH OF SEATTLE

역은이 권준

퍼낸이 | 공동체 목회자팀

이메일 hyungjaecommunity@hyungjae.org

주소 | 3727 240th St SE, Bothell, WA 98021

연락처 | 425-488-1004